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2월 1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4.(화) "행사종료"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2. 14.(화)	담당부서	구주통상과 에너지기술과 수소경제정책과 석탄광물산업과
담당과장	서성태 과장(044-203-5660) 박태현 과장(044-203-5150) 이옥헌 과장(044-203-3950) 양동우 팀장(044-203-5259)	담 당 자	박용균 사무관(044-203-5664) 이수정 사무관(044-203-5157) 김만식 사무관(044-203-3953) 신승일 사무관(044-203-5258)

대통령 호주 순방 계기, 한-호 간 핵심 광물 공급망, 탄소중립 기술, 청정수소경제 협력 강화

- **문재인 대통령 참석 下 한-호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 개최**
- **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①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MOU, ②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**

□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국빈방문(12.12~15) 계기 **한-호주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, 탄소중립, 청정수소경제** 등 **산업·에너지** 분야 **협력을 강화**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펼침

❶ **문재인 대통령**과 함께 호주의 주요 핵심광물 기업인이 참석하는 「**한-호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**」에 참여하여 **양국 기업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**을 논의함

❷ 한-호 정상회담 계기 **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**와 ①**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MOU**, ②**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** 등 2건의 MOU를 체결하여 **기후변화 대응**과 및 **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** 등 **협력**을 **고도화**하기 위한 **기틀**을 마련함

❸ **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의 앵거스 테일러(Angus Taylor) 산업에너지저배출장관*과의 면담**에서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 수소경제 협력 MOU에 따른 **협력 강화방안을 논의**하고, 양국의 **민간부문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**을 당부함

*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장관 : Angus Taylor 산업에너지저배출장관, Melissa Price 과학기술장관, Keith Pitt 자원수자원장관 총 3인

【 ❶ 한-호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 】

□ **문 장관**은 12.14(화) 16:00~16:40(이하 현지시간 기준) 호주 시드니에서 **산업통상자원부, 호-한 경제협력위원회**(Australia Korea Business Council, AKBC), **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**(KOTRA)가 **공동주최**한 **한-호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**에 참석함

< 한-호주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 개요 >

ㅇ 일시 : '21년 12월 14일, 오후 16:00~16:40 (현지 시간)

ㅇ 장소 : 시드니 샹그릴라 호텔 내 행사장

ㅇ 주최 : 산업부, 호-한 경제협력위원회(AKBC)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
ㅇ 참석 :

- (한국측) 문재인 대통령,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남영숙 경제보좌관, 강정식 주호주대한민국대사
- (호주측) 사이몬 크린(Simon Crean) 호-한 경제협력위원회(AKBC) 회장, 이안 간델(Ian Gandel) ASM 의장, 스티븐 그로콧(Stephen Grocott) QPM 대표이사, 조 캐더라벡(Joe Kaderavek) 코발트블루 대표이사, 톰 시모어(Tom Seymour) PwC 호주 대표이사

※ 현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, 손소독,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

< 핵심 광물의 중요성 >

□ 핵심 광물은(희소금속을 포함) 니켈, 리튬, 희토류와 같이 경제적·산업적 가치가 크고 수요가 높으나 공급·환경 리스크가 큰 광물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며, 전기차·이차전지·新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

핵심 광물의 주요 산업분야별 용도

수요산업	반도체·디스플레이	전기차·新에너지	기계·항공·우주·방산	자동차·정유·화학
소재·부품	연마제, 타겟, 콘덴서, 폴리실리콘 등	영구자석(전기차, 풍력 모터), 이차전지	경량금속 소재, 초경(超硬)합금	촉매 (질소산화물 등 제거)
핵심 광물	희토류(세륨, 란타늄), 탄탈륨, 규소 등	희토류(네오디뮴 등), 리튬, 니켈, 코발트 등	티타늄, 마그네슘, 텅스텐, 몰리브덴 등	백금족(백금, 팔라듐, 로듐 등)

□ 대부분의 핵심 광물은 국가별로 매장량 편차가 크고 가격 변동 및 수급 리스크가 큰 바,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매우 중요

□ 금번 간담회에서 **문재인 대통령**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각국의 생산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**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**되었다고 평가하면서,

○ 특히 **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**은 **탄소중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에**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, **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호주**와 이차전지 등 관련 산업에서 **수요가 많은 우리나라** 간에 **상호 호혜적 협력이 확대**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

○ 또한 양국 기업간의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는 점*을 평가하고, **양국 기업간 협력이 확대**될 수 있도록 **정부간 협의도 강화**해 나가겠다고 밝힘

* 주요사례: 국내기업 A社는 호주 QPM사 지분 7.5%(120억원) 인수, '23년말부터 향후 10년간 니켈 연간 7천톤, 코발트 연간 7백톤 등 수입 예정

□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 기업인들은 **양국 기업 간에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신뢰**를 쌓아왔다는 점을 언급하며, 양국간 물류 체계도 원활한 점을 강조하면서 **향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**해 나가기를 희망함

【 ② 韓산업통상자원부-濠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간 MOU 】

□ 한편, **문 장관**은 12.13(월) 09:30~10:40(이하 현지시간 기준)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한-호 정상회담 직후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①**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** 및 ②**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**을 위한 **2건의 MOU를 체결**함

①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MOU는 **한-호 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 및 청정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전주기 협력**을 위해 체결된 것임

- 양국의 **2050 탄소중립과 상향된 2030 NDC 목표를 달성**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산·학·연 간 협력이 긴요함에 따라, 수소공급망·CCUS·저탄소철강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반에서 **연구개발·실증·상용화 등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활성화**할 계획

- 아울러, 동 MOU는 '19년에 체결된 **한-호주 수소협력의향서(LOI)**를 **구체화**하여 **청정수소 공급망구축, 청정수소 인증 등 제도, 수소 발전·수송 분야 인프라 구축, 수소 전문인력양성 등** 다양한 분야의 **협력을 명시함**으로써 양국의 수소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

②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는 **양국간 핵심 광물 교역, 투자확대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**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

- 양국 정부, 기업, 연구기관,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**핵심 광물 실무그룹**을 통해 **양국 간 광물개발·생산 등** 분야에서 **공동 투자, 연구개발 프로젝트** 등을 발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

【 ❸ 호주 산업에너지저배출장관 면담 】

□ 문 장관은 12.14(화) 13:30-14:00 시드니에서 **앵거스 테일러**(Angus Taylor) **호주 산업에너지저배출장관과 면담**을 진행함

○ **호주 정부**는 한국과의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위해 **10년간 5천만 호주달러를 투자**할 것이며, **한국 정부** 또한 국내 예산절차에 따라 **상응하는 규모를 매칭**할 계획임

○ 양국 장관은 '22년 플래그십(Flagship) 프로젝트로 **수소공급망·CCUS·저탄소철강을 3개 분야를 지정**하고,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하여 **정부예산 54억원**(3년간 수소 30억원·CCUS 24억원)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

○ 이에 **양 부처는 '22년 초 동 MOU에 따른 탄소중립기술 운영그룹*** **제1차 회의를 개최**하고 **동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병행**하여 **기업간 협력을 촉진**하기로 함

* 한-호주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('80-'21.7월 기간중 30회 개최) 산하에 신설(국장급)

□ 아울러, 문 장관은 **수소가 2050년 한국 최종에너지 소비의 3분의 1**을 차지하는 **핵심 에너지원**으로 부상할 것을 강조하며,

○ 수소 활용 분야에서 **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보급경험을 갖춘 한국과** 향후 **청정수소 생산 강국이 될 호주** 간에 **청정수소 공급망·수소 활용 인프라 구축** 등 협력을 강화하여 **양국 수소경제 발전**에 **시너지 효과**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함

○ 더불어, **CCUS 기술 조기 상용화**를 위해 **호주와 CCUS 프로젝트 협력 강화 및 기술교류**를 희망하며, 향후 **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도**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

□ 한편, **문 장관**은 우리 기업·기관이 **호주와의 수소·CCUS 협력을 적극 추진**하고 있음을 언급하며, **호주정부**가 양국 산업 발전과 민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**제도·인프라**(수소충전소 네트워크 등) **등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**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박용균 사무관(☎ 044-203-56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